



# 천연기념물 '사수도' 쥐떼로 몸살

### 남시배 통해 유입 추정... 바닷새 번식 악영향 개체수 급증 우려... 포획·남시꾼 출입통제 절실

바닷새류 최대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된 제주 '사수도'가 쥐떼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수는 추자도에서 약 20km 떨어져 있으며,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 9종의 상록활엽수가 숲을 이루는 무인도서다. 특히 이 곳은 진귀한 텃새인 '흑비둘기'의 서식처이며, 여름철 새인 '슴새'의 최대 번식지로 꼽히면서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사수도 내에 유입된 설치류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바닷새 번식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류 대부분은 '집쥐'인데, 남시객을 태운 선박이 사수도에 정착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제주 사수도 흑비둘기·슴새 번식지 설치류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연구'

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굴을 파서 동지로 사용하는 슴새가 집쥐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무작위로 선택한 41개의 슴새 동지 가운데 무려 28개의 동지가 집쥐에게 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때문이다. 28개 동지 가운데 8개 동지는 집쥐에 의한 포식 증거가 확인됐고, 나머지 20개 동지는 알 또는 새끼가 사라져 있었다.

사수도에는 100개체 정도의 집쥐가 서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에 따라 1000여마리로 개체군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포획작

업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무 위에 동지를 트는 흑비둘기의 경우에는 집쥐에 의한 피해보다는 맹금류인 매에 의한 피해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생태계 내 먹이사슬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남시배 접안 금지 및 남시 금지 > 선박 우회 및 과도한 어획 금지 >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살서제·쥐덫 이용한 집쥐 박멸 >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30대 난폭운전에 전국이 '공분'

### 지난달 초침입 인근 도로 항의 운전자에 폭력 행사 경찰, 재물손괴 혐의 입건 엄벌추구 국민청원글 등장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 동영상 캡처  
이에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초침입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은 목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초침입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은 목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초침입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은 목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초침입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은 목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초침입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은 목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초침입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은 목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초침입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은 목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초침입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은 목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초침입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은 목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초침입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으로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은 목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 끝물 해수욕장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든 18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 물놀이를 즐겼다. 강희만기자

## 애견인들이 동물병원 찾는 사연...

###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도, 7~8월 두달간 운영 접수 폭증... '집'도 품절

제주도가 7~8월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등록장치가 모자랄 정도로 자진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도내 동물병원에서는 등록장치가 품절돼 막상 반려견을 등록하려 해도 수수 동안 대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반려견 자진신고가 운영됨에 따라 도내 신규 반려견 등록 수는 크게 증가했다.

제주시의 경우 7월 한달 동안 신

규로 등록된 반려견은 1700마리로,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 건수(300마리)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 전 월평균 130건 정도 이뤄졌던 신규등록은 7월 한달에 만 355건이 등록됐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8월말까지 운영됨에 따라 반려견 신규 등록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신규등록이 급증하면서 도내 지정 동물병원(제주시 39곳·서귀포시 11곳) 곳곳에서는 반려견 등록장치가 품절되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을 찾아 막상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려 해도 수수 동안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김모(26)씨는 "지난주 휴가를 내고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 제주시내의 한 동물병원을 찾았는데 등록장치가 품절돼 등록을 할 수 없었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등록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도내 동물병원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등록장치가 품절된 이후 다시 확보하지 못하면서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반려견 2000마리 분량의 등록장치를 확보해 제주시내 지정 동물병원에 반려견 등록장치를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양배추 브로컬리 무우 양파 배추 → 희소식

###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양배추·브로컬리 양파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 소독: 파종전 침치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페르카

강력한 라인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권주 영업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